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나타난 여성의 응원 패션에 관한 연구

김은정

나주대학 피부미용과 외래 교수

현대산업사회로의 전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소외의식, 욕구불만, 자기정체성에 대한 물음 등을 안고 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있는 오늘날 의식상황을 나타내는 내면은 자신의 가장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욕구를 말하며 자신의 내면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드러내어 자신의 존재를 찾기를 원한다. 또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식과 방법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의 본질적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다.

현대는 일상생활을 벗어나 이탈적인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 인간은 삶의 재충전과 즐거움을 찾으려는 레저활성시대에 살고 있다. 스포츠나 축제에 대해 인간은 열광하며 자신의 내적 욕망은 표출하고 있다. 더욱 최근 2002년 FIFA 월드컵을 통하여 한국인의 자율적인 표현의 의지를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고 세계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월드컵을 통해서도 각 나라의 문화와 패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번 2002 FIFA 월드컵을 통해서 여성파워의 위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 많았다. 억눌려있던 사회신분의 여성들이 스포츠 전쟁인 월드컵을 통해 자신의 내적 표현을 표출하여 응원하는 사례가 폭발적인 숫자와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본 연구는 월드컵 응원을 통해서 나타난 패션을 연구하여 데 그 목적이 있다.

월드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탈적

인 현상에 수용이 일구어낸 패션은 다소 파괴적이고 일상생활과는 편이하게 다른 패션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므로, 월드컵에 나타난 월드컵 패션을 연구하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적인 축제적인 성향을 내포하면서 인간의 삶의 활기를 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나타난 여성의 응원패션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통 모드로서 각 국가마다 고유의 전통적인 의상과 장식으로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응원패션을 이루고 있었다.

둘째, 이탈 모드로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났다. 노출된 부위에 이루어지는 피어싱, 해나, 스티커식 타투, 콜라주기법의 바다보석장식, 페인팅 그리고 가면을 이용한 괴이한 패션 룩을 들 수 있다.

셋째, 유희 모드로서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풍자적이며 키치적인 요소들이 즐겨 사용하였다. 특히 과대노출인 비키니 스타일로 관능적이면서 성적 유희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스포츠에 대해 사회적으로 소극적이고 소외층으로 인식되어온 여성들의 다양한 패션들을 연구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더욱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속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며 각 분야에서의 패션 문화가 창출되어질 것을 기대한다.